

상록야학 관련 보고 (2002년)

수신: 박학선 교장선생님, 최대천 교감선생님, 전 현직 선생님 외 상록야학 구성원

날짜: 2002년 12월 30일

작성자: 상록야학 전 교무부장 류영조

제목: 상록야학 2001년 7월 사직서 쓰고 나와서, 그 후로 전·현직 교사분들에게 들은 말들.

1. 이기만 선생님(전 국어교사)이 2001년 8월 말, 10년간의 상록야학 교사 생활을 마치고 떠나는 날 저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 내용:

- 이기만 선생님: '저도 이제 비상록인이 되었습니다.'

2. 신촌에서 이대열 선생님(영어교사)과 만나 식사를 하는데, 갑자기 윤기훈 선생님(전 교무부장)이 저를 꼭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약속 장소에 도착. 황기연 선생님과 윤기훈 선생님이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음.

- 윤기훈 선생님: "황기연 선생님이 최대천 선생님 안방마님이라니까요. 우리가 뒷담화 까는가 감시하러 왔어요."

3. 이기만 선생님(전 국어교사)이, 황기연 선생님 등 전·현직 교사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.

- 이기만 선생님: "최대천 선생님은 상록야학 만병의 근원이라니까요."

4. 박영훈 선생님(전 수학교사)이, 전·현직 교사 일곱 분이 모인 자리에서.

- 박영훈 선생님(전직교사) "저는 최대천 선생님, 황기연 선생님 안 믿어요."

2002년 12월 30일 상록야학 전 교무부장 류영조